

“사회적 책임 다하며 국민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

김택수 신진교통(주) 대표이사가 육운 산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기업인의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4일 서울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38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서 김택수 대표이사가 대중 교통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택수 대표이사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46년 동안 신진교통(주) 대표이사로 육운산업에 종사하면서 전북 도민과 국민의 발이 되어 국민 교통편의 제공에 헌신해왔다. ‘노사화합’이라는 기업경영의 원칙 아래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투자를 비롯해 장학금 지급, 애경사 지원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근로자 복지 향상에 힘써 왔다.

전북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전북자치도와 공동사업으로 택시 네비게이션과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도입 등을 통해 택시 선진화를 앞장서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형 택시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전북 11개 시·군에서 통화택시, 행복택시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택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택시 감차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보유대수의 31.6%를 감차하는 등 전북지역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

김 대표이사는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북 지부장으로서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보상을 통한 조합원 피해구제에도 힘써왔다. 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김택수 신진교통 대표, ‘기업인 최고 영예’ 금탑산업훈장 수상



김택수 신진교통(주) 대표이사가 14일 열린 ‘제38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기업인의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진행하는 한편 교통사고 교육영상을 제작해 SNS를 통해 교육 홍보함으로써 전북지역이 전국 평균 사고율보다 낮은 사고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중교통 버스회사인 (유)호남고속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시민의 발인 택시와 버스 양 대중교통 분야에서 육운 산업의 발전과 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수소버스, 천연가스(CNG)

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인간 중심의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왔다.

2008년부터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장애인에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 버스를 전북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이사장으로서 전북지역 교통안전 사회교육 등을 시행해 택시와 버스 등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공제조합, 교통문화연수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육운산업 전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노사화합을 기업경영 원칙으로 삼고 교통운수 분야 여러 단체의 대표를 맡아 전북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에 기여해 왔다.

전북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서왔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맡아 전북 상공인 발전과 단합에 앞장서고 전북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재)경초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아 신진교통(주)와 (유)호남고속 대표이사로서 18억원을 재단에 기부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학생과 청소년 1,266명에게 장학금 8억 4,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인재양성과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했다. 전북지역 대표인론인 전북도민일보 회장으로서 지역 여론을 선도하면서 언론문화 창달에도 공로가 크다.

김 대표이사가 46년 동안 택시회사를

대표를 맡아 이끌어온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며, 택시업계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금탑산업훈장 수상까지는 택시는 물론 버스 등 대중교통업계 발전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운수관련 단체 대표, 장학사업 등 다방면에서 육운산업 발전과 지역 산업발전에 헌신한 공로라 할 수 있다.

김택수 대표이사는 “돌이켜 보면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택시 발전에 열정을 바쳤던 순간순간이 떠오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함께 했던 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고 지역사회 활동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이 이 훈장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근로자와 택시업계 발전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대표해 받은 상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대표이사는 “오늘 수상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더욱 성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서 택시 육운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물론 지역 경제 발전 기여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택수 대표이사는 전북에서 신진교통(주) 대표, (유)호남고속 회장,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라북도지부 지부장,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이사장,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전북도민일보 회장, (재)경초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명품농업대학 제15기 졸업식... 99명 졸업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14일 남원명품농업대학 제15기 졸업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졸업식에는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열정과 지식을 갖춘 99명이 졸업했다.

남원시는 2009년을 시작으로 총 1,84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2025년 에는 수요조사를 통한 농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각기 다른 농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며,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농업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졸업 후에도 교육생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지식을 나누고 협력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쌀 소비촉진 캠페인 진행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11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29회 남원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The 맛있는 전북 남원 쌀 소비촉진을 위한 ‘범도민 아침밥 먹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와 남원 관내 농축협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 전북 남원 쌀 소비촉진을 위한 ‘범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 의지를 다졌으며,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남원 지역 쌀로 만든 가래떡과 쌀 가공품인 누룽지를 나누어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오영석 지부장은 “쌀 가격안정화와 농가의 어려운 처지 해소를 위해 범농협 모든 임직원은 쌀 소비 촉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인복지관, 방한용품 1000개 전달받아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 한국 장애인 후원연합회(회장 허성민)로부터 방한용품 1,000개를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으며, 허성민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였으며, 후원받은 방한용품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능일 아웃리치 활동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일선)는 14일 수능일에 관내 수험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남원고, 남원여고, 성원고, 서진여고 정문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1388청소년지원단,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분과 단원들과 함께 핫팩, 에너지바, 초콜릿 등이 담긴 선물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농협-무주농협, 고향사랑 상호교차 기부

순창군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과 무주군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은 7일 순창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이병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김범석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 김성철 순창농협 조합장, 박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조합 임직원들이 직접 기부한 700만원을 상호교차 기부하며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순창농협 김성철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를 순창군으로 결정하고 동참하여 주신 무주농협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주농협 박동열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상호 기부해주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유니비티플러스, 무주군에 마루 시공 지원



(주)유니비티플러스가 무주군 청소년시설의 마루 시공을 지원(6,000만원 상당)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14일 열린 기부식에는 한상준 대표이사와 김상민(사)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 전문위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주)유니비티플러스에서 무주청소년수련관(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 서양 악기실과 댄스연습실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의 사무실과 각 상담실 등 417㎡ 규모에 국내산 소나무 재질의 고강도 울코어 감바루(울고다 마루)를 시공·완료했다.

한편, (주)유니비티플러스는 가구 및 인테리어 전반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재 제품인 중밀도섬유판(MDF)과 울고다 마루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무주=전문선 기자

귀농귀촌인 화합 다지기... 고창군,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고창군 귀농귀촌인들이 하나되어 화합을 다지는 ‘고창군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가 14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박만석)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300여명의 고창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귀농귀촌인들의 재능기부 시간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이발봉사, 식전공연들이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지난 10월 열렸던 제51회 모양성제 기간 귀농귀촌협의회가 운영한 판매부스 수익의 일부를 고창군에 기부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또한 귀농귀촌 단체 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은 군수 표창과 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귀농귀촌 성공사례 발표시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읍면 지회별로 활동(생산)한 물품을 전시하고 공연 등 장기자랑으로 귀농귀촌인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아리올라이팅 김진원 부자, 김제시에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진원씨와 아들 김서욱씨가 14일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김제시사랑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진원씨는 팔순을 맞은 기념으로 지난 10월 누벨백미술관에서 부녀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가족이 김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어 아들과 함께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뜻을 전했다.

이날 김진원씨는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김제시사랑 장학금 1,000만원,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은 김진원씨와 김서욱씨가 각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 씨는 “팔순을 맞아 뜻깊고 의미 있는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선뜻 동의해준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으며 김서욱씨도 “김제 발전을 항상 응원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금이 의미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주)아리올라이팅 김서욱 대표의 아내 김희진씨도 앞서 지난 2월 500만원 고향사랑기부하여 김제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토록 통 큰 기부를 해주시 김진원씨 가족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귀농귀촌인협은 취약계층 주택수리봉사, 제과제빵 기부봉사, 농악, 난타, 리듬체조 공연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돈협회 김제지부, 저소득 가정 위한 한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대한한돈협회 김제시지부(지부장 김탁기)가 14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800kg(500만 원 상당)의 한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신입 직원들, 환경정화 나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14일, 덕유산 국립공원 내 탐방로 일대 환경 정화 활동을 가졌다.

이날 환경 정화활동에는 10여 명의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특히 지난 달 말 입사한 신입 직원 8명 전원이 동참하며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 일대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무주=전문선 기자